



밀알&세계

10

2020 | Vol.339

MILAL & WORLD

봉사하는 장애인들

장애인을 하면 보통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봉사를 받는 부분이 있다.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시각장애인이 길을 건널 때, 지적장애인이 계산을 못할 때 등등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이라고 꼭 봉사를 받는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남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를 하기도 한다. 여기에 봉사를 하는 장애인분들을 몇 분 소개한다. 그들의 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준다.

하나, 안미라 권사님. 60대 중반의 권사님은 심한 류마티스로 20년 가까이 바깥 출입을 못하시고 침대에서 생활 하신다. 그래도 권사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다. 신세를 한탄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지 않으신다. 아니 오히려 만남을 기뻐하신다. 안 권사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위로를 경험한다고 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려고 방언으로 개인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책을 보는 시간, 글을 쓰는 시간, 좋은 영상을 보는 시간으로 하루를 알차게 보내신다. 그리고 좋은 책과 영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다. 40년째 일기를 쓰고 계시며 최근에는 한글과 영어로 시집 원고를 완성하기

도 했다. <나의 노래>라는 시 속에 이런 구절이 있다 “더러움을 닦아내고 티를 뽑아내는 이 아픔들은 / 주님의 찬란한 광채속에 다 묻히겠지요 / 티 없이 맑고 고운 노래를 / 주님의 존전에 끊임없이 바치고 싶습니다.”

둘, 김윤호 형제님. 30대 중반의 형제님은 7년 전 뇌에 종양이 생겨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 밝은 세상에서 활동하다가 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니 처음에는 절망도 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한다. 밀알선교단의 컴퓨터가 오래 되어 작동이 잘 안되는 줄 알고 전에 다니던 LG에 연결하여 좋은 컴퓨터도 기증받게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밀알을 온라인으로 각 기관과 회사에 소개하고 있다. 한국어와 영어를 잘 하여 밀알 영어 웹사이트 만드는 일에 토니 형제와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셋, 최사론 자매님. 20대 중반의 자매님은 발달장애를 가진 아가씨다. 특수학급을 졸업하고 바로 장애인들을 위한 파라무스 공공기관에서 주 3일 15시간 일을 하였다. 시간당 10불 받았으니까 한달에 600불을 벌었다. 그 때부터 최 자매는 방글라데시 신티아(뇌성마비, 8세) 장





표지사진:

어느덧 2020년의 가을을 맞고 있다. 나무가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단풍은 형형색색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하듯이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란다.

차례

- 02. 칼럼
봉사하는 장애인들
- 04. 소중한 우정
친구가 필요합니다
- 06. 함께하는 즐거움
뱅크버밀알 Meet & Greet
- 08. 아름다운 소통
함께 만들어가는 밀알 커넥트
- 10. 새로운 시도
산호세 사랑의교실의 온라인 스토리텔링
- 12. 그리움을 담아
추모합니다
- 14. 고귀한 인생
가장 값진 사역자
- 16. 아름다운 섬김
밀알 사랑나누기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밀알&세계

워싱턴 · 리치몬드 · 샬롯 · 애틀랜타 · 시카고 · 마이애미 통합판

통권 제339호 | 2020년 10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이재철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워싱턴: 301-294-6342 | 리치몬드: 703-762-6906
샬롯: 704-281-8318 | 애틀랜타: 770-717-0790
시카고: 847-877-4202 | 마이애미: 786-372-3014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애소녀를 한 달에 20불씩 후원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방정부 청사에서 책상과 의자 같은 오피스 소독을 하고 있다. 슈퍼바이저와 함께 4명이 팀이 되어 일하고 있는데 시간당 13불로 올랐다고 좋아했다. 20불, 그 돈은 미국에서는 얼마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정도의 돈이면 한 달 정도 음식 값이 된다. 최 자매님의 헌금이 귀한 것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한 과부의 두 렵돈 같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은 장애인을 위해 헌금한 것이 아름답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으며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 많은 장애인들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장애인들은 사랑을 줄 수 있다. 나는 장애인들이 선교하고 봉사하는 세상을 꿈꾼다. 



글 | 강원호 목사
(세밀연 부총재, 뉴저지밀알 단장)

■ 소중한 우정

친구가 필요합니다



기나긴 인생 여정을 지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친구를 만나고 삶을 나누며 인생길을 함께 걷다 보면 편안하고 든든해진다. 친구도 종류가 다양하다.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이다.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 저울의 특징은 무게에 따라 이쪽 또는 저쪽으로 기울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타산을 따지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친구이다.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 산 속에 들어가보면 온갖 새와 짐승들이 산을 통해 안식을 얻으며 산다. 산은 멀리 보아도 아름답고 가까이 다가서면 더 편안하다. 것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를 의미한다.

더 귀한 존재는 <땅>과 같은 친구이다. 땅은 많은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낸다. 아무 조건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이 바로 땅과 같은 친구이다. 친구가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 한국 시골 마을에 가보면 그곳에서 나서 그곳에서

함께 자라 시집을 가고 그곳에서 평생 친구로 늙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 종일 일을 하며 담소를 나눈다. 간간히 음식을 나누며 정을 두텁게 쌓아간다. 그분들의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부러운 생각이 든다.

지난 봄 장애인의날에 특집으로 뒀던 영상이 있다.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유태호'이다. 두 팔이 없고 두 다리도 기형인 태호(11살)는 안암동에 있는 복지 홈에서 여러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다. 태호는 그곳에 살고 있는 어떤 아이들보다 당차고 명랑하다. 몸은 불편해도 언어 소통엔 문제가 없어 지금은 일반학교(통합 교육)에 다니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입천장까지 뚫린 채 버려졌던 태호는 '열 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다. 잦은 잔병치레를 거치면서도 올해 열한 살을 맞이한 것이다.

태호의 가장 친한 친구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성일'이다. 웃는 모습이 제일 예쁜 성일이는 제대로 걷지는 못하지만 '미소천사'로 통한다. 미소천사 성일이는

또박또박 말은 잘 하지만 글을 쓰고 읽지를 못한다. 이에 태호는 그런 성일을 위해 한글을 가르친다. 또한 태호는 덩치가 크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형들의 대변인 역할까지 도맡아 한다. ‘데굴데굴’ 굴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불편한 짧은 두 다리로 글을 쓰며 밥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어 바구니에 정확히 던져 놓는다. 공익근무요원 형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는 태호는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도전한다. 반장선거가 있던 날 얼굴 치장에 공을 들이고 멋지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내 몇 표가 모자라 낙선의 맛을 보게 된다. 반장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하고는 ‘엉엉’ 우는 태호를 보며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눈물이 쏟아지던 커다랗고 맑은 눈망울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태호를 사랑하는 여자친구 ‘인지’의 모습이 내 가슴을 더욱 울렸다. ‘인지’는 동그란 얼굴에 예쁜 눈을 가진 태호의 여자친구이다.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아이들이 많을 텐데 인지는 유독 태호를 좋아한다. 두 팔이 없는 태호에게 밥도 먹여주고 다가가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태호는 인지의 친절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인지가 “너 누구랑 결혼할래?”라고 자꾸 물어 오기 때문이다. 곁에 있던 PD가 물었다. “인지야, 너 누구랑 결혼하려고?” 인지가 대답한다. “저요? 태호요” 태호가 제법 남자답게 나선다. “그냥 이유 없이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짓궂은 PD가 다시 묻는다.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아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지가 당차게 대답한다. “변함이 없어요”하고는 태호 얼굴에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댄다. 마치 신기한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다. 태호와 인지는 눈을 마주 대고 웃더니만 이내 뽀뽀를 하기 직전까지 간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웃다가 울었다. 인지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영상을 내보내도록 허락한 인지의 부모님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엄마의 이야기다. 엄마는 “어린 딸이 장애 보인다.”고 말했다. 딸아이가 장애를 가진 ‘혜진’이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다. 딸아이의 가장 친한 친구 혜진이는 몸이 약간 불편하다. 어릴 때 심하게 앓아 몸 한쪽을 잘 쓰지 못한다. “둘이 어떻게 친해졌느냐?”고 물으니 혜진이의 천사 같은 미소 덕분이라고 한다. 작년 가을에 온가족이 이사를 했고 딸은 낯선 도시의 학교로 전학을 해야만 하였다. 딸은 전학을 와서 너무 외로워 그만 울어버렸더라. 그런데 한 아이가 아무 말없이 맑게 웃으면서 곁에 와서 있더라.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진 혜진이었다. 혜진의 따뜻한

미소가 딸아이의 마음을 녹였고 그래서 둘은 그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딸이 다니는 학교에 갔다가 둘이 노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엄마는 깜짝 놀라게 된다. 천방지축 딸아이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그네 있는 곳까지 뛰어가는데 그 뒤를 친구가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다. 먼저 그네에 도착한 딸아이는 양보도 하지 않고 냉큼 그네를 탔고, 혜진이는 뒤에서 한참을 밀어준 다음에야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내 딸이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양보할 줄도 모르는 아이라니...’ 엄마는 너무 놀라서 집에 돌아온 딸아이를 야단치게 된다. 한참 꾸중을 들던 딸아이가 입을 연다. “엄마, 난 있지, 혜진이가 몸이 불편하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려. 그런데 꼭 내가 일부러 기억하면서 양보하고 그래야 해? 좀 이상하지 않겠어?” 딸의 말을 들으며 엄마는 망치에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래 ‘진짜 친구는 상대의 장애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내게는 친구가 많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무거운 가방을 들어 주던 친구부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까지 다양한 방면에 포진해 있다. 그들 모두의 특징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랜만에 절친한 송태근 목사(삼일장로교회)가 미국에 집회 차 왔다가 우리 집에 들렸다. 친구에게 가장 사랑하고 싶었던 것은 보조기를 차고 두발로 걷는 모습이였다. 한국에서는 오른손으로 장애 있는 다리를 잡고 다녔기 때문이다. 드디어 친구를 만나 “나 봐라, 이제는 두발로 잘 걸어 다닌다.” 했더니 친구가 나를 훑어보며 하는 말. “너 항상 잘 걸어 다니잖아” ‘아니, 이렇게 나에게 무관심했다니!’ 겸연쩍었지만 장애를 개의치 않고 수십년 친구가 되어준 목사가 고마웠다. 장애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친구가 필요하다. 🌈

글 | 이재철 목사 (미주밀알 총단장, 필라델피아밀알 단장)



■ 함께하는 즐거움



밴쿠버밀알선교단이 지난 8월 29일, <Meet & Greet> 프로그램을 런칭하며 밀알 식구들과 반가운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Meet & Greet>은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각 스테이션에 마련된 활동들을 통하여 교감하며 함께 격려와 사랑을 나눴다. 더운 날씨와 안전을 고려한 여러가지 제약에도 창 너머로 눈을 마주치며 행복해하는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색색의 종이비행기, 환영의 노래, 기도 등을 만끽한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간식이 가득 담긴 선물(주님의제자교회 사랑부 지원)을 안고 밝은 얼굴로 주차장을 떠났다.

한 학부모는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돌아올 곳이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도 늘 함께하는 밀알선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밴쿠버밀알선교단은 새롭게 런칭한 프로그램 <Meet & Greet>을 포함해 유튜브 채널 <우리로그Woori Log>, 줌미팅 및 온라인 예배 등의 방법으로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글 | 이상현 목사 (밴쿠버밀알 단장)







함께 만들어가는 밀알 커넥트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밀알 봉사자 ‘오주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뉴욕밀알이 퀴런틴 기간동안 만든 ‘밀알 커넥트’란 유튜브 채널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 밀알 장애인 친구들도 퀴런틴 기간에 집에 있어야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베이사이드에서 드리던 예배는 온라인 Zoom으로 대체되었고, 장애인 친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의캠프 또한 취소가 되어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욕밀알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장애인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자 모두 유튜브 방송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기에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어 녹화를 하고 매주 같은 시간에 방송을 트는 게 어떠한의 의견도 있었지만 오철 목사님께서선 그럴 경우 장애인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고 계획대로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이 있던 그 주 평일에 두 세 번씩 zoom으로 봉사자들이 만나 대본 리딩을 연습해보고 내용들을 점검하고 난 뒤 6월20일 토요일에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엔 뉴욕밀알이 어떤 곳이며 밀알의 장애인 친구들(3인방 대표 언니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고 실시간으로 우리 뉴욕밀알 장애인 친구들과 밀알을 섬겨 주시는 분들이 올려 주시는 채팅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로 실시간 소통이란 것을 하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첫회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45분 방송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회를 거듭하며 방송 세팅도 정말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처음엔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 할지 몰랐던 저희 봉사자들도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각자 알아서 진행, 스크린에 대본 띄워 주기, 실시간 댓글 확인, 카메라 체크, 준비한 파워포인트 체크 등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의 콘텐츠 또한 매회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뉴욕밀알에서 자체 제작한 장애인이 주인공인 동화책 소개와, 예수님을 장애인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우리 교회에 만약 장애인이 온다면 그들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 자폐와 지적장애엔 어떤 차이가 있고 후천적 장애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 오랫동안 섬겨온 밀알 봉사자들의 관점과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청년 봉사자들과 더 윗 세대인 집사님, 권사님들의 봉사를 하면서 느끼게 된 점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회에 나눠 우리 뉴욕 밀알 장애인 친구들의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밀알 장애인 친구들이 매주 방송을 보며 재밌어 하는 모습과 채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감사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저희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채팅창에 저희 이름을 써주며 재밌다고 하면 저희 진행자들은 또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인사해주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밀알 커넥트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예전 봉사자 분들에게도 장애인 친구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기도 하고 서로 보고싶다는 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타주 밀알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소식을 듣고 시청하러 와주시고, 시청자 퀴즈 시간엔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답을 맞추려는 모습에 저희 모두는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소통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방송 진행 중 머릿속에 문득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첫 회 방송 전 다들 긴장하고 있던 저희 진행자들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차피 우리 식구들끼리 보는 거니까 그렇게 떨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식구'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장애인과 일반이라는 두 단어로 불리지만 그런 우리가 밀알이라는 한 곳에 모여 함께 웃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한 식구라 불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밀알 커넥트와 같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장애인 친구들의 사는 모습을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뉴욕밀알의 바람입니다. 🍀

글 | 오주원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 새로운 시도

산호세 사랑의교실의 온라인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알리고자 하는 바를 단어, 이미지, 소리를 통해 사건,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이다.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는 모든 문화권에서 교육·문화 보존·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써, 또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는 방법으로써 공유되어 왔다. 스토리텔링에는 줄거리(plot), 캐릭터, 그리고 시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키백과-

북가주밀알의 산호세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Zoom을 통해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친구들의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진이의 스토리텔링 'Fishing'

진행방법: 사진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유진이에게 질문을 하면 유진이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진이가 좋아하는 곡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사진과 곡(동영상)은 호스트가 화면 공유로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이는 어려서부터 아빠와 낚시를 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가장 즐기는 취미가 되었습니다.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장비와 fishing license 등을 알려주면서, 낚시대, 바다나 호수에서 낚시하는 사진들, 잡은 물고기 사진들도 보여주었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Fish A Thon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 작년 여름에 몇몇의 밀알 친구들과 Lake Tahoe에 가서 유진이가 잡은 trout으로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기쁘게 나누었던 것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몇 해 전 아저씨가 그의 sailboat에서 베풀어준 생일 파티도 멋진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유진이가 소중하게 여기는 Fisherman Santa Claus 인형도 보여주었고, Trout이 움직이는 게 연상된다며 무척 좋아하는 Schubert의 Trout 곡을 친구들과 함께 들으며 storytelling을 마쳤습니다. 낚시를 통해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즐거움을 배우며 더욱 성숙해가는 그의 모습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fishing luck 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이클의 스토리텔링 'My Family New Mexico Trip'

진행방법: 마이클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에 해당하는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호스트가 화면 공유로 보여주었습니다.

My storytelling is about the family vacation to New Mexico last year April. It took about 3 hours to New Mexico from San Jose by air plane. The first day we went on Hot Air Balloon ride. It was very exciting and fun ride up on the sky. We could see the beautiful scenery from the sky. Please show the picture number 1, 2, 3, 4. The 2nd day we went to White Sand National Park. The scenery was amazing. Miles and miles were covered by white sands like snow but it was not snow, it was white sands. My sister helped me riding sled on the sands. I had a lot of fun in the park. Please show the picture number 5, 6, 7, and 10. The 3rd day, we visited Calsbad Cavern national park which is a huge cave. I've never seen such a huge cave. It is like underground Grand Canyon. It was so amazing and beautiful I'd like to recommend everybody to visit this cave. You will not be disappointed. Please show the picture number 11, 12, and 13. The 4th day we went to Bandlier national monument and we saw a lot of caves on the mountain. Some of the caves were small and some of them were big. A long long time ago, native- Americans used to live in those caves. We all climbed up to the big caves and took pictures. Also, we spent some time for hiking around the area. It was amazing place too. Please show the picture number 14, 15, 16, 17, 18. The 5th day we visited Pueblo of Taos which is Native -American Village. Native Americans are still living in the village. It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oldest continuously living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This has been designate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t was good to see a beautiful church in the village. Please show the picture number 19, 20, and 21. The night before we left New Mexico, we enjoyed the mineral warm spring bath at night in the outdoor. It was a very good feeling because I could see the stars in the sky while we were enjoying the mineral bath. Besides all these places, we visited the house of famous artist, Georgia O'keefe and tour the house. During the trip I noticed most of the houses in New Mexico were built with clays in Hispanic style. The last thing I want to mention is I enjoyed the food very much during the trip. Please show the picture number 22, 23, 24, 25, and 26. Thank you everybody for listening my story. 🌟

편집 | 이승헌 목사 (북가주밀알 총무)

■ 그리움을 담아

추모합니다



고 나임희 권사님을 추모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오늘도 사랑하는 밀알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나임희 권사님의 첫 기도 내용이셨다.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듯이 “하나님! 아시지요?”라고 외치는 권사님의 기도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이 우렁차셨다. 지금도 권사님의 기도소리가 귓전을 맴돈다. 워싱턴밀알에 부임하고 첫 심방은 나임희 권사님 덕이었다. 30대 따님 나영신 자매님과 함께 생활을 하셨다. 예배를 마치니 권사님께서서는 냉면 육수를 어제부터 뼈를 고아 만드셨다며 “점심 드시고 가시라요” 하신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냉면은 처음이었다. 먹으면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내 궁금했다. “권사님 레시피 알려주세요!”란 질문에 “나중에 껌겨줄



고 윤석연 전도사님을 추모하며

전신마비의 어려움을 딛고 인간승리를 일군 중증장애인 윤석연 전도사님이 5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워싱턴밀알에 처음 부임해오니 윤석연 전도사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곤 했다. 밀알 미팅을 줄여서 ‘밀팅’이라는 밀알 활동을 통해 그 당시 윤석연 형제의 집을 방문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일들이 스쳐간다. 젊은 청년들이 대다수였는데 온 몸을 자기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형제에게서 한번도 찡그리는 얼굴을 보지 못했고 언제나 천사의 미소로 모두를 반겨 주었다. 밀알 청년들과 윤석연 형제의 방에선 언니, 오빠, 형 등 너무나 평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꽃들로 가득 메우곤 했다. 석연 형제도 띄엄



고 이미현 권사님을 추모하며

우리 워싱턴 밀알에서 가장 화려하고 연세가 많으신 최 고령자 이미현 권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따님의 연락을 받고 마음이 무거웠다. 한달 근간에 세분의 소천 소식을 접하였지만 이미현 권사님의 소식은 더 아프다. 작년에 자택에서 뇌성혈으로 옮겨 가신 후 식사가 입에 안 맞아 식사를 못하셔서 원래도 마르신 분이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다. 매주 수요일마다 정택정 목사님께서 한국음식을 가져가 먹여드리면 맛있다고 남기지 않고 다 드시고는 “담 주에는 냉면 가져오세요, 순두부, 우동, 비빔밥 등이 먹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잘 드시니 정 목사님도 어머니를 뵈고 오신듯이

글 | 정일분 사모 (워싱턴밀알)

께.” 하신다.

식사 중에 대뜸 “세 에미나이들을 어칼끼고?”라고 물으셨다. 밀알에 영신, 주디, 제시카, 이 세 자매를 함께 염려하시며 하신 말씀이다. 이 셋은 한국인으로 가까운 이웃에 같은 지적장애인으로 친구처럼 의지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장애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애보다 하루만 더 살아야 한다.”고들 하신다. 우리 나 권사님께서도 이런 염려를 늘 하셨던 분이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사에 열심과 씩씩함으로 살아오셨다. 60대 초반의 씩씩하고 명석하셨던 권사님의 건강이 약해지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노인 Care Home에 들어가셔서도 정택정 목사님의 라이드로 빠짐없이

밀알에 나오시곤 했다. 한주간 중 밀알에 오는 것이 큰 낙이라고 월요일만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니 코로나 사태로 모든 외출과 방문이 금지되면서 무척이나 사람이 그립고 외로우셨나 보다. 평생 중 삼분의 일을 아름답게 밀알을 섬겨 오시다가 지난 8월 7일 88세를 향수하시고 지금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늘 그리워하시던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 권사님께서 ‘나중에 께켜 주시겠다던’ 냉면 레시피는 ‘안 께켜’ 주셨지만, 또 따님 영신 자매보다 먼저 가셨지만, 괜찮아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기도의 어머니로 길이 기억하며 권사님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할게요!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실 것을 믿으며…

떡임 어눌한 말로 밀알 청년들의 안부를 묻곤 했다.

23살 대학생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40여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깨어나 어려운 병상에서도 2권의 책을 출간한 윤석연 형제는 2001년에 <마음은 푸른 창공을 날고>라는 시집과, 2018년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담은 <꿈작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란 병상일기를 출간했다. 입으로 불어 컴퓨터를 작동하는 고도의 난관을 딛고 경희사이버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그 후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과 함께 학위를 취득했다. 윤석연 전도사님의 생애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또 동시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넘치며, 어느 누구에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는 인간 승리의 길을 갔다. 말없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하였으며,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아들로 깨끗하고 순결한 옷을 입고 생을 마감한 고귀한 삶이었음을 감사드린다. 29년만에 널싱홈에서 자택으로 옮겨 마지막 순간 2주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는 윤석연 전도사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연 전도사님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자와 어린양이 함께 뛰노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확신한다.

좋아하셨다. 젊은 시절부터 휠체어에 몸을 싣고 삼분의 이 평생을 살아오시다 93세의 고령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 오셨다.

밀알집회 때마다 고쟁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씩 꺼내어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꼭 쥐어 주시던 권사님이 그립다. 전형적인 할머니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밀알 안에 가득해진다. 3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널싱홈을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정목사님도, 가족들도 이 권사님을 뵈 수가 없었다. 3월에 마지막 방문하였을 때 밀알 식구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며 안부를 물

으셔서 기억이 좋으시니 아직 오래 사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일찍 돌아가시니 코로나가 불러온 외로움과 고독의 아픔은 참으로 무서운 것 같다. 만나면 반갑고 안 보면 보고싶은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미현 권사님께서 많이 외로우셨으리라 생각되어 마음이 아팠다. 이미현 권사님! 홀로 아무도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외로운 방에서 많이 힘드셨지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휠체어 안 타시고 마음껏 걷고 뛰고 날아다니시면서 먼저 간 밀알 식구들 만나 즐거운 이야기 많이 하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계세요!! 🌈

■ 고귀한 인생

가장 값진 사역자

헨리 나우웬은 그의 생애 마지막 시기의 약 10년간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보냈습니다. 나우웬은 장애인을 가리켜 ‘피동적 사역자’라는 감명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8월 19일은 우리 밴쿠버밀알과 수년 간 함께 지냈던 공유진 친구가 하늘나라에 간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유진 친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에 며칠 간을 코마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그 시간은 공유진 친구의 엄마에게 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은 귀한 것이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담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으로 우

리 유진이는 여섯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새생명과 새 삶을 선물로 안겨주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마도 우리 유진이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며칠 동안 코마상태에 있도록 하신 모양입니다. 그 시간 동안 유진이는 참 평안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가장 값진 일을 하고 간 귀한 사역자로 제게는 기억됩니다. 그 여섯 명 중에서 유진이의 심장을 받은 분이 보내온 편지를 밀알가족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

글 | 이상현 목사 (밴쿠버밀알단장)

"When the light returns to his source, it takes nothing of what it has illuminated."

True to this saying, he continues illuminating my life with the gift of his essence that I received, on my birthday.

Before the gift of your son, my heart was failing and critically harming other organs..
How do I share with you that you gave me a life back?

You changed my life and gave me a second chance - something that not everyone is so fortunate to receive. You afforded the opportunity for me and my family to be together and find happiness again and clearly, we have all been blessed with the ultimate gift. The importance and immense meaning of the gift given can never be expressed in words.

Your family is in my thoughts and my hope is that you are able to find moments of peace and comfort, especially knowing how his organ donation has made a positive impact on me and others' lives.

And I think you should know that not one day goes by that I do not think of the generous spirit of yours, and your son who enabled me to continue to breathe again.

He is with me, literally, with every breath I take. I admire your bravery, strength, and magnanimity to agree to the procedures in the midst of your grief.

It has been a year since I have received my new heart and I am doing very well. My heart is strong and healthy. I have recently completed my yearly post-transplant checkup, and the results have been great.

My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you...

Thank you and God bless.

Dear Donor Family,

I am the recipient of a heart from your loved one. Words cannot begin to express my gratitude for the gift your loved one has given me, given my family. I am the father of 3 daughters and the husband to my wife of 40 years. They always say it takes just one person to make a difference. I have never understood that as much as I do today, your loved one has given me a gift that has changed everything. It has given me a second chance at life.

Thank you for giving me more time to spend with my children and my wife. Thank you for giving me time to meet my grandchildren. There are no words to describe the love I have for these special gifts in my life, and because of your loved one, I am thankful to be able to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and loved ones.

We are all so thankful. While we may not know you, we have cried tears for you and your loved one. We could only imagine the pain your family went through during your terrible loss. We are very sorry for all that you have endured. I wish you healing for your family and hope that someday we can meet.

P.S. Your loved one's heart was put inside of me on my 68th birthday. I was reborn that day.

Thank you

Forever grateful.

The Organ Recipient



■ 아름다운 섬김

밀알 사랑나누기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4)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Stay at Home과 Social distancing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자로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3~14)



이 말씀을 벽에 붙여 놓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금식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왔다. 코로나19로 전세계에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이 때 나는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 금식하며 말씀만 읽고 있어도 되나 하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병원 청소라도 자원할까 했는데 코로나 19로 병원 봉사도 아무나 할 수 없단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잘 아는 분을 통해 LA 노숙자 점심 봉사하는 것을 소개 받고 매주 수요일에 노숙자 봉사를 시작했다. 하루 봉사하는 것으로 부족한 것 같아 고민했고 밀알선교단이 떠올랐다. 이종희 단장님에게 연락을 드려 벨리지역에 밀알 식구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음식이나 마켓 장봐서 배달해드리는 봉사를 할 수 있다고 했더니 ‘밀알 사랑나누기’ 프로젝트 Food Drive를 소개해 주셨다. 그래서 지난 4월말부터 밀알 총무이신 신경섭 목사님과 LA지역 FD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경섭 목사님, 에스더강 목사님, 강은혜 권사님과 한 팀이 되어 그룹 홈 3곳을 포함해 14곳을 방문하여 밀알 본부에서 준비한 사랑나누기 패키지를 전달하고 있고, 나는 밀알 식구를 위해 기도해

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길에서 장애인을 위해, 그것도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분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캄캄했다. 그러나 몇 번의 봉사를 통해 사정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영육 간에 강건함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주시기를, 또한 밀알 식구들이 모여 마음껏 예배와 찬양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구했다.

밀알 식구 몇몇 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언제 밀알 식구들 모이냐고 빨리 만나면 좋겠다고 하신다. 집에만 있기가 너무 심심해 죽겠다고 하는 분, 그 와중에도 수어를 배워서 섬기시려는 분, 사랑의 패키지를 받으며 진심으로 감사해하시는 분, 봉사자들을 위해 마가렛 자매님이 불러준 은혜로운 찬양 등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만나며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나누기 Food Drive'는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것을 깨닫게 하였고, 그래서 밀알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장애인을 섬기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다. 함께 해야 한다. 밀알 식구와 한 분 한 분 연락하여 시간을 조율하고 사정을 살피시는 에스더강 목사님, 도시락과 사랑의 패키지를 꼼꼼히 점검해주는 강은혜 권사님, 그리고 그 험한? LA 한인타운을 용감하게 운전하며 인도하시는 신경섭 목사님(아마도 내가 운전을 했으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 같다. ㅎㅎ), 이런 분들과 환상의 팀으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특별히 중간 중간 수어가 필요한 분들에게 김인주 권사님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수어로 기도를 통역해주시는 것도 감사했다.

내 개인적으로는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안식하며 다음 사역지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밀알 사역을 섬기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밀알 사역에 헌신하시는 이종희 단장님과 여러 스텝분들과 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밀알을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페이스북을 통해 밀알 '사랑 나누기' 사진을 보시고 치킨테리야끼 도시락을 후원해 주신 빨리 '치킨 베네'와 일회용 마스크 2,000개를 후원해주신 'MSC Foundation' 그리고 김밥, 치킨테리야끼, 삼계탕과 볶음밥으로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주신 밀알 봉사자 분들의 귀한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

글 | 승광철 목사 (남가주밀알, 자원봉사자)



워싱턴

정기집회 안내

워싱턴밀알의 사역이 코로나 19로 인해 계속 대면모임을 가질 수 없어 대신 Zoom 예배로 진행 하고 있다. 성인예배(매주 목요일 7시)와, 아동예배를 위한 토요 사랑의 교실(락빌, 볼티모어, 버지니아 통합-11:00am)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8월 한달은 방학을 하고 사역자 및 교사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랑의교실 Zoom 봉사자 오리엔테이션

8월 29일, 사랑의교실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10:30~12:00까지 열렸다. 정인정 전도사님의 뜨거운 찬양으로 모두가 예배 및 교육에 헌신을 다짐하였고, Jenny Shin 선생님이 섬김의 자세와 특수성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Care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강의하였고, 게임과 Zoom 예배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 친구들을 가슴으로 만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방법을 나누는 박성식 총무님의 세미나가 있었다. 위와 같이 사역자 및 교사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밀알 사랑나누기’에 후원해 주심에 감사

- 밀알을 사랑하며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으로 섬겨주시는 베다니연합한인감리교회와 남선교회에서 이 달에도 마스크 500장을 보내주심에 박대성 담임목사와 온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늘 밀알을 사랑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부숙 집사님과 주정아 자매님께서 사랑의 교실 장애아동들에게 시루 도시락 25개를 주문하여 밀알직원들의 배달로 우리 친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두 분의 귀한 사랑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 오랜 세월 월요모임에서 매달 한번씩 짜장면Day로 외식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신희숙 집사님께서 코로나 19로 외부 출입도 할 수 없이 집안에만 갇혀 있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짜장면을 배달하여 또 한번 큰 기쁨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매주 배달되고 있는 밀알 장애인 가족들의 ‘사랑나눔’ 식품바구니에 저먼타운베

이커리의 맛있는 한국 식빵과 각종 빵을 제공해 주시는 저먼타운베이커리 최집사님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연이어 여섯 달째 밀알에서 준비한 식료품, 생필품 등을 매주 한번씩 밀알 장애인 가정에 ‘식품바구니’란 이름으로 공급하고 있다. 사역자들이 당연히 섬기고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곳에 음식, 식품 등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정택 정목사님을 비롯하여 박성식 총무님, 정인정 전도사님, 정일본 사모님의 아끼지 않는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 물질로, 식품으로, 기도로 헌신해 주신, 약한자를 긍휼히 여기며 베풀며 섬기기를 즐거하는 손길위에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쁨진 것으로 채우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밀알&세계 발송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Social Distancing으로 밀알 스태프들이 하루에 조금씩 한 주간에 걸쳐 메일링 작업을 마쳤다. 밀알&세계는 장애인 사역의 홍보, 계몽을 담당하는 월간지이다. 봉사자의 글, 신앙간증, 밀알의 정신, 각 지역 소식 등이 실려 있는 이 월간지는 매달 워싱턴 지역에 1,500여부가 발행되며 밀알 단원들과 후원자들에게 무료로 배부되고 있다. 밀알&세계를 정기 구독하길 희망하시거나 주소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밀알선교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워싱턴밀알선교단 사무실 301-294-6342, Email: milalusa@gmail.com)

단장 동정

- 8월 한달간 Zoom 영상예배를 쉬고 밀알 가족들과의 개인적인 거리두기 만남을 통해 사랑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 8월11일: 나임희 권사님 고별예배 (헬로쉽교회/6:00pm)
- 8월15일: 장애인 가정 식품배달 심방
- 8월21일: 장애인 가정 식품배달 심방

후원 안내

워싱턴밀알에 아래와 같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 Paypal: Milalusa@gmail.com
- Amazom smile: American Wheat Mission (Rockville)
- Venmo: @Washington-Milal
- 우편: American Wheat Mission / 13925 Travilah Rd., Rockville, MD 20850
- Pay to the Order: American Wheat Mission

함께 기도해주세요

- 면역력이 약하고 소통과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밀알가족들이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나영신 자매님과 아들을 먼저 주님 품 안에 보내고 아파하는 이용기 집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유가족들이 되도록.
- 밀알가족들의 식품 공급을 위하여 이 상황에서도 동분서주하며 뛰여 다니시는 박성식 총무님과 정일본 사모님, 정인정 전도사님과 그 외 밀알 스태프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사랑하는 밀알가족들과 기쁨으로 만나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샬롯

Academic Assistance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의 학교 온라인 수업을 돕기 위한 ‘Academic Assistance Service’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런칭하는 프로그램은 COVID-19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수업준비와 학습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팬데믹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매주 화, 수, 목 7 AM to 12 PM)

Homeless Ministry

샬롯 업타운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에 가면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COVID-19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연중사역의 일환으로 Men's Shelter에서 점심식사를 나누고, 홈리스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눠주었던 것을 정기 모임으로 전환하여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Virtual Respite Saturday

가을학기 온라인 예배와 액티비티가 토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진행됩니다.

- 봉사자훈련: 8월29일(토) 오전9:30분
- 준비물 픽업: 8월29일(토) 오후3시-7시
- 개강예배(온라인): 9월5일(토) 오전10-

차가버섯 펀드레이징

면역력 강화에 뛰어나고, 항암 효과가 있으며, 성인병과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최상급 Organic 차가버섯 분말을 판매합니다. 밀알에서 판매하는 차가버섯은 북부 캐나다 산으로 한 팩에 200g 들어있으며 가격은 \$40 입니다. 개인 혹은 선물 용으로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복용 방법 (커피머신을 이용할 경우)

- 커피 대신 커피 분량의 거의 절반을 커피 머신에 넣는다. 기호에 따라 커피와 차가 버섯을 섞어도 된다.
- 미지근한 물로 커피와 같이 내린 후 마시면 된다. (끓는 물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도제목

- Academic Assistance Program을 1대 1로 섬길 수 있는 Tutor 선생님과 잘 연결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를...
- Respite Saturday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며, 성령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 Homeless Ministry를 통해 길거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사역을 섬기는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리치몬드

목회자 사역 동정 (8월)

- 2일(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 12:15 pm) 인터넷 예배
- 9일(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 12:15 pm) 인터넷 예배
- 14일(금): 밀알&세계 발송
- 16일(일): 평강장로교회 (9:00, 11:00 am) 방문 및 설교
- 25일(일): 워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 12:15 pm) 인터넷 예배

기도제목

-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두를 지켜 주소서
-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학생봉사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 잔유 형제가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 그리스가 직장 취직할 수 있도록
- 마태 형제 집이 매매될 수 있도록
- 만화(그림)성경과 신앙도서들을 일독할 수 있도록
-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종결되어 밀알이 다시 개강할 수 있도록

애틀랜타

사역자모임

9월 24일, 밀알 사역자 모임을 화상채팅으로 가졌습니다. 사역과 재정 보고를 먼저 나누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반기 계획 중인 AMA 프로그램과 사랑의교실, 그리고 제 4차와 제5차 사랑의바구니 나눔과 일일찾집 행사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AMA 프로그램과 사랑의교실 오픈은 10월까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후 차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애틀랜타 밀알 아카데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Blue Jeans 화상 채팅으로 모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게임과 특별활동으로 함께하는 AMA(Atlanta Milal Academy) 모

임에 초대합니다. 특별활동을 인도해 주시는 황세희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AMA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앞으로 AMA프로그램이 더욱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길 바랍니다. AMA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전문 선생님과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MA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성인 장애인 친구들과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봉사자는 밀알센터 (404-644-3533)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교실 (슈가로프 & 놀크로스)

하반기 사랑의교실 개강이 Zoom Meeting으로 9월 12일에 개강하였습니다. 토요일 사랑의교실은 장애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놀크로스 지역과 슈가로프 지역 2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1대1 성경공부 및 다양한 특별활동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교실에서는 점심봉사로 섬겨주시 교회나 개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교실에서 함께 섬김을 나누기 원하시는 자원봉사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교실 for 놀크로스 지역 담당자(하현지 간사) 770-310-5223
- 사랑의교실 for 슈가로프 지역 담당자(서혜권 목사) 678-862-3314

밀알미용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밀알 미용이 10월까지 캔슬됩니다.

밀알선교센터 마련을 위한 모금 캠페인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애틀랜타밀알선교센터 마련을 위한 \$500,000 모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사역에 적합한 장소로 이전하여, 사랑의교실, AMA프로그램, 주중특별활동 등 밀알의 다양한 사역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활발하게 운영되어질 수

지단별 소식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밀알선교센터 마련을 위한 \$500,000 모금캠페인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www.atmilmal.com 밀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Paypal을 통하여 직접 가입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 우편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밀알선교센터 마련을 위한 모금캠페인이 은혜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금캠페인 동참 방법〉

- Pay to order: Wheat Mission in Atlanta (P.O. Box 635 Duluth, GA 30096)
- 〈온라인 송금안내〉
- 은행이름: PromiseOne Bank
- Account Number: 0112000542
- Beneficiary Name: Wheat Mission in Atlanta

추천도서

박성하 집사님의 저서 '평신도가 본 신학과 신앙'이란 책을 \$15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책 구입은 애틀랜타 기독교백화점(678-765-8939), 애틀랜타 말씀사(770-310-6381) 또는 밀알센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 책의 모든 판매 대금은 애틀랜타밀알선교센터 구입기금 마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커피 방향제 및 카드판매

밀알선교 사역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커피 방향제와 카드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 방향제를 판매할 판매처를 찾고 있습니다. 커피 방향제 구입과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밀알센터로(404-644-3533)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 밀알센터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적합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 양영선 장로님, 제임스 어머니, 이병유 집사님, Mr. Wozniak 선생님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밀알사역 동정

- 9월 1일, 밀알&세계 발송작업
- 9월 3일, 10일, 17일, 24일 AMA 모임 (화상채팅으로)
- 9월 12일, 19일, 26일 사랑의교실 모임 (화상채팅으로)
- 9월 24일 사역자 모임(화상채팅으로)
- 10월 3일, 4차 사랑의바구니 전달

시카고

사랑의교실 (토요일 & 주일 & 주중)

토요 사랑의교실: 시카고밀알선교단의 사랑의교실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밀알선교단 복지관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체조를 비롯한 액티비티와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등 각종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재활 프로그램을 갖고 장애인 1명에 봉사자 1명씩 1대1로 장애인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일 사랑의교실: 발달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주일에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밀알선교단에서는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랑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맡기고 각자의 교회에 가서 편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교실 활동들

토요 사랑의교실 그리고 주일 사랑의교실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임시방학 중입니다. 집에만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무척 심심해 할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 집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 친구들의 건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까운 소식: 김경숙 자매의 소천

8월 16일 주일 오전, 그동안 사랑의교실에서 함께 했던 시각장애인 김경숙 자매가 49살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병인 당뇨 때문에 투석을 받던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장기기증을 통해 30명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떠났습니다.

8월 26일에 20명 정도 모여서, 경숙 자매가 출석했던 새누리주님의교회 오찬석 목사님의 집례로 하관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시 못 보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것을 기대하며, 슬픔을 달랠 것입니다.

COVID-19 속에서도 장애인들이 건강하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반가운 얼굴로 다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밀알선교단에 필요한 물품을 C B Supply(대표: 정선량 장로님)에서 기증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센터(복지관)

밀알선교단 복지관은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 선교와 복지 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요일, 주일 사랑의교실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개방합니다. 사용을 원하는 분들은 밀알선교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관 주소: 855 N Sterling Ave, Palatine, IL 60067

‘밀알&세계’ 안내

시카고밀알선교단에서는 월간지 ‘밀알&세계’를 매월 1,000부씩 발행하여 400부는 각 독자들에게 우편으로 배달되고, 600부는 교회와 마켓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밀알&세계 발송을 위해 김선유 자매가 매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미담 등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및 주소 변경 시 밀알선교단 연락처는 847-877-4202, e-mail: chimil94@gmail.com입니다.

재정보고 2020년 8월

워싱턴

수입부: \$12,795.00

MD개인: \$3,795.00 \$20 채재동 / \$25 윤영상&루미 / \$50 송우선&주희, 황만균&김혜수, 최귀학&최혜숙, 엄덕수, 이정숙, 김옥련, 손을순, 이정용&용난 / \$100 홍두표&배정숙, 고윤자, 양재영 &남혜옥, 안창우&세라, 최윤광&최미진, 노순애 / \$150 다니엘강 / \$200 무명, 오은정, 이효식&이혜원, 정윤성&서혜정, 정인정&정소연 / \$300 정택정&정일본 / \$500 김은택&김세명 / \$800 무명

VA개인: \$1,380.00 \$20 양유순 / \$30 이순정, 이정자 / \$50 김부순 / \$100 이영숙, 신제영&김순애 / \$200 하창식&순덕, 박옥희 / \$650 신예진

MD교회: \$3,750.00 \$100 제일침례교회, 메릴랜드크리스찬교회, 로럴한인침례교회 / \$150 영광장로교회 / \$200 가든교회, 헤거스타운한인교회 / \$250 세미한장로교회 / \$300 메릴랜드한인장로교회 / \$600 헬로쉽교회 / \$1,750 지구촌교회

VA교회: \$1,670.00 \$25 스테포드장로교회 / \$100 조이장로교회, 워싱턴성광교회, 워싱턴예수사랑교회, 워싱턴평강장로교회, 꿈과사랑의교회 / \$200 신실한교회, 워싱턴한인장로교회 / \$300 와싱턴중앙장로교회 / \$445 겨자씨교회

기타: \$500.00 헬로쉽교회(한마음청년부)

기타 개인: \$100.00 이종화

단체: \$900.00 \$300 Michael Parsons / \$600 지구촌마켓

지정후원금: \$700.00 워싱턴복음장로교회

지출부: \$20,384.39

사무비: \$1,614.63 웹사이트관리비 \$45 / 정수기 \$58.99 / 신문구독료 \$30 / 사무실인터넷&전화 \$220.94 / Tax Deposit \$930.08 / 휴대폰비 \$123.01 / 회계사비 \$100 / 사무용품 \$67.25 / ITalkBB \$39.36

문서선교비: \$1,985.42 밀알&세계 발송비 \$560.42 / 밀알&세계 인쇄비(8월) \$1,425.00

사랑의교실: \$584.10 사랑의교실 구제비 \$34.10 / 교사사례1 \$250 / 교사사례2 \$300

전도활동비: \$10,343.84 장애인 코로나 식품구입 \$2,265.51 / Massmutual \$303.41 / 장애인보조(구제) \$691.50 / 장례식,개업화환 \$300 / 조의금 \$100 / 지단후원(8,9월) \$800 / 사역자사례(A) \$900x2 / 사역자사례(B) \$600x2 / 간사사례(A) \$941.71x2 / 간사사례(B) \$500x2

차량관리비: \$825.01 Kia Van Gas \$222.65 / 차보험 \$402.36 / EZPASS \$25 / 라이드비 \$200

지정: \$3,226.04 사택비 \$1,840 / Gas지정 \$100 / 상회비(6,7월) \$1,286.04

기타: \$1,805.35 건물수리비 \$14.29 / 전기세 \$501.70 / Mortgage \$1,289.36

전월이월금: -\$2,868.43 | 차월이월금: -\$4,720.96

샬롯

수입부: \$2,710.00

개인: \$2,310.00 \$20 권정미, 박영임 / \$30 임희강 / \$40 이기웅 / \$50 문수미, 박상근, 이용환, 정설아 / \$100 이민경 / \$150 이승민, 최종은 / \$200 김대업, 이수영(차가버섯), 최다영 / \$1000 진주선

교회 및 단체: \$400.00 \$50 샬롯중앙침례교회, 샬롯화요모임 / \$100 드림교회, 샬롯SDA, 하모니교회

지출부: \$2,217.58

선교사역비: \$259.38 \$10.63 Origami Paper / \$10.66 50 pc rainbow magic scratch paper / \$35.22 Non-Contact Thermometer / \$60 200 masks / \$68.17 Lunch / \$75 UNC TEACCH 3 days seminar

사무행정: \$358.20 \$7.50 Bank Fee / \$50.70 Paypal Fee / \$150 Homepage Maintenance, Insurance

선교후원: \$50.00 방글라데시밀알

선교사역: \$1,700.00 \$700 사례 / \$1,000 주택보조

전월이월금: \$8,527.91 | 차월이월금: \$8,870.33

복지센터기금: \$3,000.00

리치몬드

수입부: \$1,520.00

개인 및 단체: \$1,320.00 \$100 애플츄리덴티스트리, 이해경, 평강장로교회 / \$120 밀알&세계(워싱턴밀알선교단) / \$200 새누리교회 / \$300 주예수교회 / \$400 평강장로교회(장애인 선물)

지정후원금: \$200.00 서바울 목사 사모(평강장로교회)

지출부: \$2,321.44

사랑의교실(선물): \$290.04 선물 및 우편발송

문서선교비: \$98.00 우표구입 및 발송

사무&관리비: \$95.80 \$35 셀폰비 / \$60.80 상회비(8월)

차량관리비: \$397.60 \$150 보험료 / \$247.60 월페이먼트

사역자사례비: \$1,440.00 \$200 목회자 사모 / \$1,240 사택비 보조(8월)

전월이월금: -\$180.05 | 차월이월금: -\$981.44

애틀랜타

수입부: \$10,973.00 (밀알센터 후원기금 제외)

개인: \$2,023.00 \$20 정선호 / \$41 최다희 / \$50 장명자, 조현정, 한에스터 / \$60 김미경 / \$100 김남미, 박귀희, IM SUK KARAS / \$200 서은경 / \$300 최재휴 / \$430 최다정 / \$412 최다영

교회 및 단체: \$5,250.00 \$50.00 NINA BEAUTY SUPPLY / \$100 양문장로교회, 올랜도섬기는장로교회, 크리스탈한인교회, FAITHHOPE, INC./ \$200 주빌리장로교회, 밀알클리닉 / \$300 웨잇빌장로교회 진리사랑방, 선교중앙교회, 애틀랜타새교회 / \$400 섬기는교회 / \$500 한비전교회 / \$600 샘물장로교회 / \$2,000 주님의공동체교회

지정 및 회비: \$3,700.00 김신애사모 \$100 (FAITHHOPE, INC.) / 샬롯밀알 \$100 (최다영) / 장애인장학금 \$300 (박성하) / 김동연 \$300 (ELIZABETH D. KIM) / 이사회비 \$900 (이희양) / 밀알가족후원 \$2,000 (박성하)

밀알센터 후원기금: \$11,494.01 \$13.94 은행이자 / \$31 조성은 / \$40 김상준 / \$100 김한나(영옥), 최재휴 / \$200 손홍민&하은 / \$500 마루공방 / \$1,509.07 CD / \$3,000.00 이희양 / \$6,000 ATLANTA K MEDIA LLC

지출부: \$7,871.30

문서선교비: \$200.00 Bulk Mail 발송비

선교사역비: \$1,950.00 \$50 노크로스 사랑의교실 특별활동 / \$100 샬롯밀알 / \$300 Ally / \$500 AMA / \$1,000 슈가로프 사랑의교실

지정후원금 지출: \$400.00 \$100 김신애사모 / \$300 장애인장학금

사역자사례비: \$4,005.83 \$791.75 간사 / \$3,214.08 단장사례

관리비: \$1,315.47 \$21.20 물 / \$100.00 복사기 렌트 / \$117.00 전화 및 통신 / \$162.55 GAS / \$169.84 밀알센터 오물세 / \$265.00밀알센터 전기세 / \$479.88 홈페이지 관리비

전월이월금: \$2,199.12 | 차월이월금: \$5,300.82

시카고

수입부: \$8,010.00

이사후원금: \$1,100.00 \$100 김신, 한준일 / \$300 남성우 / \$600 신익상

실행단원 후원금: \$210.00 \$10 김선유 / \$200 익명

개인후원금: \$1,540.00 \$10 이강석 / \$20 장재영, 황보라 / \$40 전승평 / \$50 권효섭, 김명희, 김정미, 박세진, 박수경, 박영일, 성사라 / \$100 SeanLee, 박정주, 윤송식, 이명자 / \$200 이복덕, 익명 / \$300 차승길

교회및단체후원금: \$3,220.00 \$100 가나안교회, 갈멜장로교회, 레익뷰언약교회, 리빙스톤교회, 빌립보교회, 삼버그침례교회, 온유한교회, 헬로쉽교회 / \$120 은혜침례교회 / \$200 갈보리장로교회, 미드웨스트장로교회, 베델장로교회,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시카고기쁨의교회 / \$300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 \$400 임마누엘장로교회 / \$600 한인제일장로교회

지정: \$2,250.00 \$50 김정숙 / \$100 소스어페럴 / \$500 온유한교회 / \$600 김신 / \$1,000 김경숙

지출부: \$7,980.15

선교사역비: \$3,350.00 사례 \$1,300 / 주택보조 \$1,900 / 퇴직적립 \$150

사랑의교실: \$1,100.00 교사사례비

관리비: \$279.02 Gas \$124.62 / 차량관리 \$154.40

복지관: \$1,392.52 가스 \$120.50 / 전기 \$435.49 / 쓰레기 \$115.95 / 물 \$57.25 / 건물보험 \$487.48 / 유지비 \$60 / 물품 \$115.85

행정비: \$579.27 세금 \$99.45 / 신용카드수수료 \$42.42 / 회계사비 \$70 / 상회비 \$214.40 / 경조비 \$150

사무비: \$246.42 전화비 \$78.90 / 인터넷 \$159.83 / 사무비 \$7.69

홍보비: \$1,035.92 밀알&세계발송 \$182.92 / 밀알&세계인쇄 \$853

전월이월금: \$18,316.38 | 차월이월금: \$18,656.23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실행단원() 후원단원() 월 \$5() \$10() \$20() \$30() \$50() \$100() 그외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Chicago 시카고밀알선교단

855 N Sterling Ave, Palatine, IL 60067

Tel: 847-877-4202 / Fax: 847-496-4942 / Email: chimil94@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주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카고밀알 선교복지센터 855 N Sterling Ave, Palatine, IL 60067
문의: 847-877-4202

American Wheat Mission 워싱턴밀알선교단 | www.washingtonmilal.org

13925 Travilah Road, Rockville, MD 20850 / Tel: 301-294-6342 / Fax: 301-294-6195 / Email: milalusa@gmail.com

정기집회 볼티모어: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뱌엘교회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워싱턴: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워싱턴밀알선교단 13925 Travilah Rd., Rockville, MD 20850
 버지니아: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메시아장로교회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사랑의교실 볼티모어: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로럴침례교회 10624 Scaggsville Rd., Laurel, MD 20723
 워싱턴: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워싱턴밀알선교단 13925 Travilah Rd., Rockville, MD 20850
 버지니아: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와싱턴한인교회 1219 Swinks Mill Rd., Mclean, VA 22102

Milal Mission in Richmond 리치몬드밀알지소 | www.richmondmilal.wordpress.com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리치몬드주예수장로교회) / Tel: 703-762-6906 / Email: milalrichmond@gmail.com

밀알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1:30 리치몬드주예수장로교회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1:00 ~ 오후 2:30 리치몬드주예수장로교회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Milal Mission in Charlotte 샬롯밀알지소 | www.milalmission.org

2817 Mt Harmony Church Rd, Matthews, NC 28105 / PO Box 2605, Indian Trail, NC 28079 / Tel: 704-860-1388 / Email: charlottemilar@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2:00 Mt. Harmony Baptist Church 2817 Mt Harmony Church Rd, Matthews, NC 28105
밀알컬리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4:00 밀알센터

Milal Mission in Atlanta 애틀랜타밀알선교단 | www.atlmilal.com

P.O. Box 635, Duluth, GA 30096 / Tel: 770-717-0790, 404-644-3533 / Email: atl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애틀랜타밀알선교센터 4281 Steve Reynolds Bl., N.W., #5, Norcross, GA 30093
사랑의교실 for Kids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슈가로프 한인교회 1664 Old Peachtree Rd. NW, Suwanee, GA 30024
애틀랜타밀알 아카데미 매주 화,수,목,금 오전 10:00 ~ 오후 3:00 애틀랜타밀알선교센터 4281 Steve Reynolds Bl., N.W., #5, Norcross, GA 30093
밀알미용 매달 둘째주 목 오후 3:30

Milal Mission in Miami 마이애미밀알연락소

P.O. Box 431841, South Miami, FL 33243 / Tel: 786-372-3014 / Email: miamimilal2019@gmail.com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샬롯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